

전주 종광대 토성, 전북 문화유산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지정 고시… 후백제 시대 상황 반영 중요한 유적 가치 인정

아파트 개발과 문화재 보존이나를 놓고 양날의 검 역할을 했던 후백제 토성으로 전주의 북쪽 지역을 방어했던 종광대 토성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지난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반태산(종광대) 일원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의 방어 기능을 담당했던 전주 종광대 토성(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산 77-1번지 일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기념물)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전주 종광대 토성은 성곽의 축조 방법과 특수성, 후백제의 시대 배경에 대한 전모가 밝혀졌고, 유물 및 문헌 자료 등을 통해 시대성과 진정성의 가치를 담고 있는 유적으로 평가돼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 기념물 지정을 통해 더 이상의 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고 경관에 대한 보존을 위해 역사문화 환경 보존구역에 대한 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종합정비계획을 세워 이들 바탕으로 추가로 성곽 경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한 후 정비·복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 종광대 토성은 1530



아파트 개발과 문화재 보존이나를 놓고 양날의 검 역할을 했던 후백제 토성으로 전주의 북쪽 지역을 방어했던 종광대 토성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전주부 고적조에 ‘견훤이 쌓은 고토성’으로 기록됐다.

또 조선시대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와 ‘대동지지(大東地志)’, ‘완산지(完山誌)’ 등에서도 관련 내용이 확인되며, 1942년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전주부사(全州府史)’에서

는 후백제 토성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전주 종광대 토성은 지난 2008년 전주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과정 중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해 시굴 및 발굴조사를 거쳐 후백제 토성임이 확인됐다.

토축 성벽은 기존 반태산의 자연 지형을 적극 활용했으며, 방어에 취약한

부분(반태산 북쪽 사면)의 일부를 ‘ㄱ’자형 또는 ‘ㄴ’자형으로 굴착한 후 토성이 밀리지 않게 바닥면에 기와 문석을 만들고 그 위를 다시 점토와 기와, 모래 등을 섞어 편축하여 성벽을 축조했다.

토성의 정상부는 토루는 기존 지형보다 좀 더 높게 축조하고, 사면부는 토성의 정상부 토루가 무너지지 않게 관측해 보축(補築)한 양상이 확인됐다.

이러한 성곽 축조 방식은 통일신라 때 석성(石城)에서 주로 활용되는 기술을 토성 축성에도 활용한 드문 사례이며, 기존의 자연 지형을 적극 활용하여 적은 공력을 들여 거대한 토성을 축조한 사실들을 통해 당시 후백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심부 토축과 사면의 경계를 중심으로 기반암 풍화토층 위로 다량의 기와(기와집적부)가 확인됐으며, 수습된 기와의 문양은 전라감영과 전주 전동성당 일원, 전주부성 등 구도심 일대의 후백제 문화층과 후백제의 대표적인 유적인 동고산성 등에서 출토된 기와와 동일한 형태의 문양과 제작 기법이 확인됐다.

/권희성 기자

“인구문제, 함께 고민해야 할 때”

전윤미 전주시의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효자 2·3·4동)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 의원은 최병권 전주시의원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함께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전주시의회 신유정 의원과 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를 지목했다.

전윤미 의원은 “인구문제는 특정 세



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전주시의회도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병원 동행 서비스’로 의료 접근성 높인다

전주시의회, 최지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사진)이 대표로 발의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1인 가구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자, 1인가구, 장애인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의하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 내용 및 이용요금, 수행기관 지정 및 협약, 동행 매니저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니저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해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최지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의료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완산구, 찾아가는 경로당 운영회계 교육 실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용삼)는 건강하고 활기찬 경로당 만들기 일환으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9개동을 방문해 136개소 경로당 회장, 총무 등 300여명에게 찾아가는 운영회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로당 전반적인 운영과 보조금 집행 기준 변경 사항과 최근 민원이 자주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주의할 점을 안내하고, 견의사항 접수 등 다채롭게 구성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회장 예비 지급, 간편한 회계장부 작성, 보조금 집행기준 완화 등 다양했으며 활기찬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박은하 여성가족과장은 “상반기 경로당 운영회계 교육에 참석하신 회장 총무님들께 감사드리며,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만큼 폭염에 대비하여 냉방기를 점검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하반기에는 10개동 182개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정원도시 전주, ‘초록정원공동체’ 출범

정원 전문 인력·시민 참여 동별 정원공동체 조직 공공정원 조성

전주시를 하나의 정원으로 보고 34개 동마다 시민주도로 생활밀착형 정원을 만드는 정원도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지난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초록정원공동체는 시민들이 직접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골목이나 공원 등 생활속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는 공동체로, 시민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는 과정을 통해 전주라는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만드는 ‘정원도시 전주’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시는 덕진구 팔복동 2가 추천대공원(전주초록정원)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시민법인 더숲 관계자, 시니어클럽 대표, 초록정원공동체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참여형 정원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전주시는 지난 20일 우범기 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시민법인 더숲 관계자, 시니어클럽 대표, 초록정원공동체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참여형 정원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초록정원공동체’ 발대식을 가졌다.

‘초록정원공동체’ 발대식을 가졌다.

초록정원공동체는 그동안 시가 양성해 온 초록정원사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져 도시 곳곳을 정원으로 변화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초록정원공동체는 초록정원사 등 정원 전문 인력과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각 동별 정원공동체를 조직해 공공정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동별 5인 이상, 각

동별 1개씩 총 34개 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34개 동별 정원공동체에는 초록정원사와 정원관리사,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게 되며, 마을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각자의 동에 맞는 꽃과 정원의 컨셉트를 정하고 이에 맞게 도시정원을 만들고 가꾸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34개의 이야기가 담긴 정원들이 모여 정원도시 전주만의 거대한 도시정원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